광주전남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국토부, 3800억 들여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등 조성
스타트업 기업 지원·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도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신규 사업비 380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등을 조성하는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된다. 또 국가산단 신규 지정·스타트업 기업 지원·산학연 발전재단 설립·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주변 지역 상생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정주 여건 개선·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한국전력공사·한전KPS·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신규 사업은 1480억원 규모의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24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선도도시 조성이다.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는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 사업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를 유치한다. 이를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해 창업·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해 관련 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에너지분야 맞춤형 스마트시티도 조성한다. 스마트 전력 인프라를 조성하고 에너지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혁신도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산단 신규지정 및 투자선도지구 확대 지정, 전력거래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창업스쿨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재단 설립, 문화·커뮤니티 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라이프 구현을 위해 112·119긴급출동·재난상황지원·사회적 약자지원 등의 도시정보 등을 통합한 플랫폼도 선보인다.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나주 원도심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재단을 설립해 특화발전 전략 이행을 주도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북은 농생명 융합특화지구로 조성된다.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있어서다. 인근의 국가 식품클러스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 미생물 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도 입주시킨다. 또 전주 스마트시티 플랫폼도 구축하고 전주와 완주로 이원화 된 행정서비스도 통합을 추진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사위'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오늘 광주 방문

5·18 묘지 참배 … 전남대 독문과 출신 김소연씨와 28일 결혼 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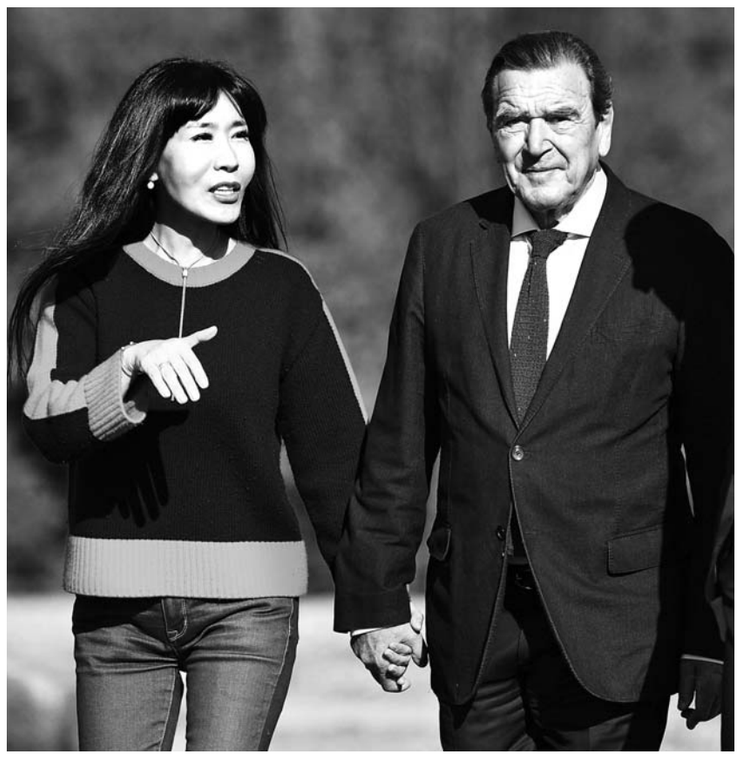
게르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 부부〈사진〉가 5·18민주묘지 등 광주를 방문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 부부는 26일 오후 3시 20분께 김황식 전 총리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의 유해가 봉안된 추모비를 찾는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북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 중인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할 계획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5일 독일에서 한국인 김소연(48)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진행될 결혼 축하연을 위해 지난 24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방한 당시 김 전 총리와 함께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깊은 감동을 드러낸 바 있다.

부인 김씨는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생으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부에서 슈뢰더 전 총리의 통역사로 활동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와 부인 김소연 씨가 10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바이마르 소재 부헨발트 나치 유대인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손을 잡은 채 걷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는 지난 5일 독일 베를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일빌딩 리모델링 본격 추진

426억 투입 시민공간·5월 추모 공간 등 조성

광주시가 전일빌딩〈사진〉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25일 "최근 분야별 전문가, 5·18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을 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활용방안 기본조사 및 기획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5·18 총탄흔적 발견으로 인한 원형보존 필요성, 안전성 문제 제기, 기존 임차인의 퇴거 불가 논쟁, 용도 결정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광주시는 설계용역 착수 26개월여 만에 열린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에는 사업비 426억을 투입하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전자도서관, 남도관광마케팅센터, 시민생활문화센터, 오픈라운지, 시민사랑방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민다. 지상 5층부터 7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관된 콘텐츠 창조기업을 집적화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상 8층은 시민다목적홀과 스카이라운지가, 지상 9~10층은 5·18 당시 헬기 총탄흔적이 남아있는 현장이라는 역사성을 살려 5·18 추념 공간으로 조성한다. 옥상은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겸 휴게공간으로 마련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에너지스마트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에너지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인 나주시 왕곡면 일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25일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양산리·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0월30일까지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를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는 오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560억 원이 투입돼 166만여㎡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박병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시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 국내 연안습지 최초

순천시가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순천시를 비롯해 제주시, 창녕군, 인제군 등 우리나라 4곳을 포함한 전 세계 7개국 18곳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순천시는 순천만과 동천하구 등 연안습지로는 최초다. 나머지 제주 동백동산,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은 내륙습지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는 도시 또는 마을을 3년마다 열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이번 총회에서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추진했다.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동천하구 습지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완충지역(생태보전지구)을 지정하는 등 습지보전이 도시 관리의 주요 목표가 되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번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으로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친환경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해 국내외 경쟁력 향상 및 청정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이용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게 된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게 됐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습지보전 참여가 활성화돼 순천만·동천하구 습지의 보전과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전남 56곳 신청

해수부 12월 결과 발표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전남 15개 연안 시군 56곳 5465억 원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여수 11곳, 신안 8곳, 진도 6곳, 고흥·보성·영광·완도 각 4곳, 장흥·해남 각 3곳 등으로,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다.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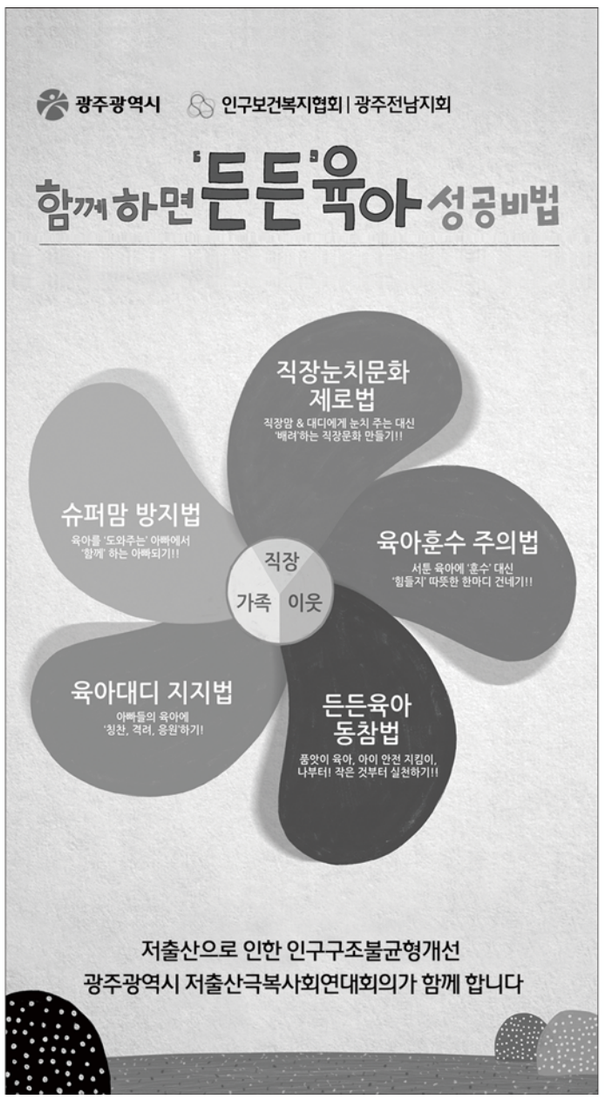
해수부는 오는 12월께 최종 70곳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경매비법 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교육/임장비 1200만원(3개월)
· 배우면서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